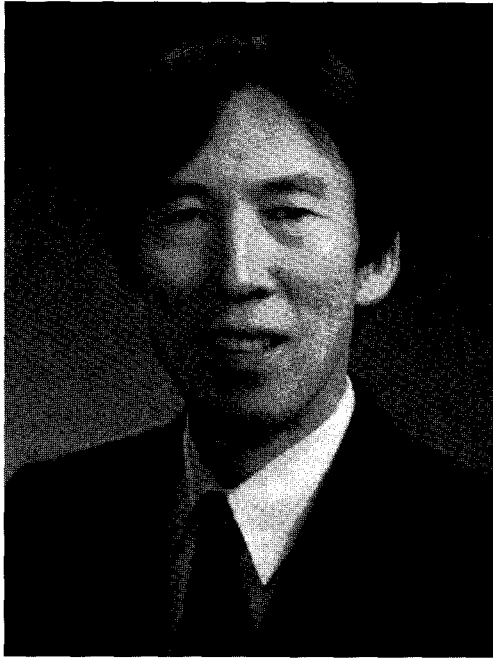




# 국제발명품 “수맥돌침대”



이 경 복 대표

수맥연구가(국내 3천여곳 수맥탐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조폐공사 연구원 역임  
수맥을 연구하는 벤처기업 수맥돌침대 대표

## 성공의 왕도는 신용!

충청도 시골에서 초롱불 시대의 6.25무렵에 태어난 이경복 사장은 시골 빈농의 아들 사형제 중에 막내로 가난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그 당시는 보릿고개 시대라 쌀밥을 생일날이나 먹어보던 시절이었고, 나머지는 보리밥, 밀가루, 수제비 등으로 끼니를 잇던 시절이었다.

초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청주에서 중·고등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기도 했던 이경복 사장은 그 후 상경하여 직장을 다니며 모은 돈으로 다시 학문의 열기를 불태워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군생활을 마친 후 조폐공사 연구소에서 공채로 합격하게 되었다.

수석으로 입사한 그는 연구소에서 돈을 강하게 잘 만드는 연구 업무에 종사하면서 꼼꼼하던 성격이 더

욱 치밀한 분석력과 매사에 예리한 통찰력을 보이기 시작하며 사업의 기초를 다져갔다.

조폐공사 연구소를 그만 두고 상경하여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하기에 이른 이경복 사장은 통큰, 배짱 좋은 자신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난의 연속이었다.

온실의 꽃이 야생화로 되는 시련기의 생활이 계속되었고,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왜 “사업을 하느냐”며 모두들 반대하였다.

부인은 직장을 보고 시집 왔는데 왜? 그 좋은 회사를 그만 두느냐? 왜? 사업을 시작 하느냐며 목놓아 울었다.

건강식품 사업이 그의 첫번째 사업이었고, 실패는 아니었지만 사향길이었다. 그로 인해 1년만에 정리하게 되었고 두번째로 슈퍼마켓을 차렸다. 먹고 살기는 괜찮았지

만 많이 피곤하였다. 그리하여 전업을 꿈꾸던 중 이웃의 권유로 세번째 봉제공장을 크게 차려 장안평의 스키용 장갑, 레저용 장갑을 만들어 수출하는 공장을 세웠으나 이번엔 종업원들의 콘트롤이 문제였다.

엮친데 덮친격으로 유투파동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집을 팔고 돈을 빌려 빚갚고 남은 돈 400만원이 전부였다.

소자본으로 할 것이 없나하며 궁리하던 중 문구점을 차렸다.

꽤 재미를 보았으며, 학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아저씨(이경복) 인기는 대단하였다.

하지만 이것도 소규모의 장사라 식성에 차지 않았다. 다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 방배동에 큰 해물탕 집을 차렸다.

처음엔 장사가 꽤 잘 되어 먹고 살기엔 괜찮았지만 너무 피곤하였다.

5시 기상 12시 취침의 연속이었다.

전업을 하기로 마음 먹고 있었는데 웬 날벼락인가 콜레라 파동으로 음식점들은 뒤서리를 맞고 말았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까먹은 것이었다. 이젠 죽어야만 하나! 독수공방! 두문불출! 면회사절! 다시 궁리하며 온갖 책을 다 뒤지는 방구석 인생을 보내며 성공을 향한 책을 뒤졌다.

신문을 한 자도 놓치지 않고 읽던 중 온돌방이란 기사의 박스 기사를 읽어 보게 되었다.

유럽의 호텔에서는 온돌방이 없어서 손님을 놓친다는 기사를 보는 순간 “바로 이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 5000년 역사의 구들방 문화를 재현하는 사업이 태동하는 순간이었다.

지금의 온돌침대...

다들 미친 사람이라고 멸시했다. 딱딱한 돌에서 어떻게 자느냐고...

고립무원이었지만,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은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말을 되뇌이며 일을 착수하게 되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성경 말씀대로 그의 철학을 믿으며, 친구 사무실을 빌려서 전화 두대를 놓았다. 자본금 100만원 이었다.

잠실 전화국 민원실장을 줄라 지금의 전화 ☎ 443-2828, 443-5888 두대를 놓았다.

전화번호를 의역하여 443-2828(사사삼-이빠이빠), 443-5888(사사삼-오-빠)로 홍보하며 10년 넘게 사용하는 효자 전화번호이다. 이렇게 의역한 전화번호를 모든 광고물에 사용, 돌침대를 열심히 만들어 밤낮으로 홍보하였다. 성공의 여신은 다가오고 있었다. 첫번째 팔리게 총 3대, 그 다음 달은 8대 계속 신장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듯 국내 선두 대열에 우뚝 설 수 있었던 밑거름은 신용과 약속이었다. 그리고 제품의 품질 향상(Quality)이었다. 매출이 떨어지면 밤새 궁리하였으며, 연구하고 연구하여 목표를 세워서 끈질기게 노력하여 공장을 조그맣게 마련하였다.



수백돌침대 내부전경



수맥검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대표

이때부터 계속 승승장구 하였다. 행운의 여신이 계속 따라 주었고, 모든 것이 노력과 신용의 댓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기업 성공의 최 왕도(TOP=頂上)는 신용이란 걸 깨달은 것이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논리적 사고력을 갖고

‘나는 못한다, 나는 안된다, 나는 쟁피하다’ 라는 고정관념을 깨부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하여 그의 온돌 돌침대 사업은 탄탄대로로 질주하게 되었던 것이다.

### 잠을 잘자야 건강하다.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의 건강에 있어 숙면(熟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온갖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현대인에게 편안한 잠자리만큼 훌륭한 안식처도 없을 것이다. 단 1시간을 자더라도 일어나는 순간 전날 쌓였던 피로가 풀리며 개운한 기운이 충만

하다면 이후의 일의 진행이 얼마나 자연스러우며 활기찰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겠다.

지형적인 조건중에 인간에게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 원인중에 하나가 수맥이다. 수맥은 지하에 흐르는 중력수이다.

이러한 수맥대가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지하수에 용해된 전기적 영향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수맥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나 가축 그리고 건축물과 정밀기계 등에 피해를 주며 초고층건물의 상층부에

까지 그 영향력을 미친다고 한다.

특히 생명체의 경우 생명체의 움직임 중에는 그 영향이 거의 없으나 취침중에는 수맥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여러 가지 학설에서 입증되고 있는데, <수맥과 풍수>에서 ‘집을 옮기면 건강이 회복되는 경우 대부분 수맥을 피했기 때문이다. 중풍, 고혈압환자는 침실의 수맥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TV, 컴퓨터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은 수맥의 영향에 의한 경우가 많다. 정밀기계가 잘 고장나는 공장은 수맥이 지나가고 있다.

우환이 많은 집안, 도깨비집터라 불리는 흉가는 수맥 때문인 경우가 많다.’ 라고 했고, <수맥은 과학이다>에서는 ‘장수촌으로 소문난 지역은 대부분 수맥이 없다. 예부터 산소의 명당 조건으로 수맥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라고 했으며, <수맥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에서는 ‘잠을 잘만큼 잤는데도 찌푸둥한 것은 수맥의 영향이다. 가축의 유산도 수맥의 영향이 있다.’ 라고 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무엇보다 인간에게 치명적

이라고 할 수 있는 수맥을 차단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하겠다. 그래서 최소한 인간이 수면중에 있어서 만큼은 '수맥을 차단해야 겠다' 라는 생각으로 수맥돌침대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 국제 발명품 의료기 부문서 4년간 금상 수상

수맥돌침대의 옥돌·맥반석 침대는 이러한 수맥의 유해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제품으로 수맥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임응승 신부의 실험을 통해서 그 사실성을 입증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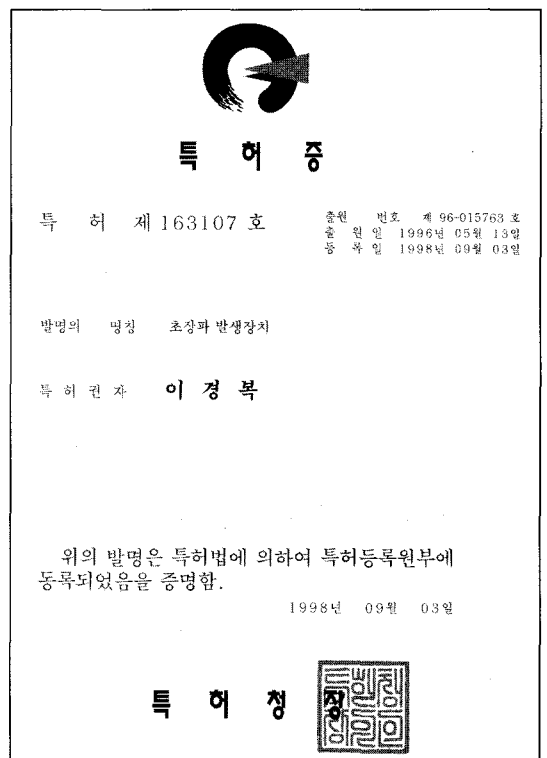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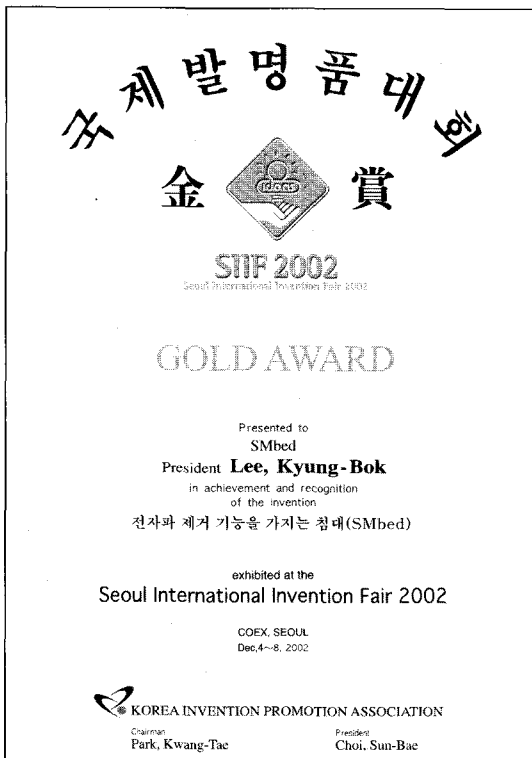
또한 국제 발명품 대회 중 의료기 부문에서 '93년 독일 뉘른베르그, '94년 스위스 제네바, '96년 미국 캘리포니아, 2002서울국제발명품대회에서 모두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도 ISO 9000인증과 Q마크를 획득하였

고 전자파 제거 기능까지 겸비하여 이 부분에서 실용신안등록증까지 받은 상태이며, '초장파발생장치'와 '초장파발생 난방 흠침대'로 특허권을 따내기도 하였다. 명실공히 이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확실히 입지를 굳힌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사용자들의 반응도 앞서 나열한 수상과 검증부분이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 준다.

오수영신부는 지하수관계로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늘 피곤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아도 신통치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수맥돌침대를 사용한 후 특히 밤에 잠을 잘 잘수가 있어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수맥돌침대를 사용해본 많은 사람들이 그 효능에 대해 한결같이 좋은 평가를 하고 있어 수맥돌침대의 가치는 그만큼 높아질 전망이다.





이경복씨가 서울 은평구의 양로원을 찾아 한 할머니에게 수맥을 설명하고 있다.

## 양로원 들며 노인들 잠자리 편안하게

이경복 대표는 전국의 양로원을 들며 노인들의 잠자리를 돌봐주고 있다.

“과거 끼니를 거르며 고생하던 때를 생각하면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마음을 떨칠수 없다”고 밝혔다. 양손에 탐사봉을 들고 양로원 이방 저방을 돌다보면 노인들과 금세 친해져 세상 살아가는 얘기도 나누게 된다고 했다.

돌침대 사업으로 번 수익금으로 10여년간 각종 사회단체에 20억여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앞으로 남북한의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를 마련해 주고 싶어 방법을 찾고 있다”는 이경복 사장은 “평생 ‘나눔의 미학’을 실천할 것”이라며 활짝 웃었다.

### ♠ 이경복의 수맥칼럼 ♠

#### 수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수맥파동의 파동 즉 수맥파에 의해서 대지의 전자기장에

변조가 나타나면 이는 곧바로 인체 전자기장에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불균형하고 비정상적인 파동의 영향으로 인해 인체의 신경계, 면역계, 호르몬계는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기능이 약화되면서 우리의 몸은 서서히 병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때는 이동이 거의 없는 휴식을 취하며 잠을 자고 있는 수면중이다. 그러므로 잠자리는 반드시 수맥파를 피해야 할 것이다.

#### 첫째, 인체의 신경계는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수맥파가 대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수맥파로 인해 야기되는 초조, 불안, 두통, 불면증 등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숙면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뇌파가 4hz 이하, 즉 델타파 상태로 내려가야 하는데 수맥이 지나는 곳에서 잠을 잘 경우엔 지구의 고유 진동주파수가 아닌 불안정한 수맥파가 뇌파에 공명을 일으켜 선잠상태나 의식상태(베타파)에 머물게 하므로 수맥파에 의해 인체의 신경계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 둘째, 인체 면역계 약화로 암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킨다.

일본 노동성 산하의 산업의학 종합연구소는 놀랄만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혈액중에 전자기파를 쏘인 결과 암 등 종양 세포에 대한 공격력을 갖는 혈액속의 면역단백질의 양이 보통 때의 75%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세포 내부간 DNA정보교환의 혼란을 줌으로써 유산, 사산을 유발하며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

#### 셋째, 호르몬계 이상과 생체리듬이 깨진다.

전자기파가 어떤 물체에 닿을 경우 그 물체의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인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체 조직의 온도가 섭

씨1도 이상 상승할 경우 피부온도에 민감한 호르몬계는 호르몬 분비에 이상을 가져온다. 이와 함께 인체의 일정한 방향으로 반응하려는 생체리듬에도 영향을 주게된다. 이로 인해 인체는 서서히 질병이 생기게 된다.

유산, 조산 - 임신부가 수맥파에 노출되면 태아는 그 영향으로 유산, 조산, 사산되는 경우가 많다.

**수맥의 피해로 나타나는 증상**

**수면장애** -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선잠으로, 숙면을 이루지 못하거나, 악몽을 꾸다거나, 가위에 눌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학습장애** - 기억력과 사고력이 떨어지고 자신감상실 등으로 이어져 학습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어린이의 경우 발육부진등 경기, 신경질적인 성격으로 나타난다.

**업무능률저하** - 집중력이 떨어지고 만성피로감 스트레스로 무기력으로 업무능력이 오르지 않게 되며 주의력이 산만해져 교통사고나 사재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질병의 유발 및 회복둔화** - 인체 신경계, 면역계, 호르몬계에 영향을 미쳐 질병이 유발되기도하며 회복이 둔화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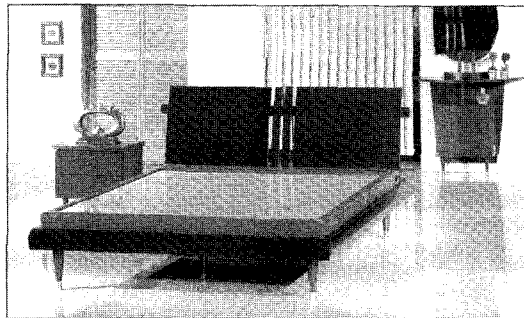
**수맥파 차단이 꼭 필요한 사람**

수맥기파 식물	수맥기파 동물
배나무, 사과류, 건과류, 밤, 호두, 양두, 라일락, 보리수, 해바라기	사람, 개, 소, 말, 양, 돼지, 닭, 조류, 물고기
수맥선호 식물	수맥선호 동물
벗나무, 복숭아, 지두, 버드나무, 버섯, 약초, 엘더베리, 떡갈나무	고양이, 꿀벌, 개미, 곤충류, 결핵균, 기생충, 박테리아

- 고혈압, 저혈압 환자(수맥파 노출시 증폭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다)
- 정신집중이 안되고 산만하고 피곤한 수험생
- 경기를 자주하는 어린 아기, 이유없이 계속우는 아기
- 잠을 자고 일어나도 무겁고 피로한 사람
- 허약한 체질, 예민한 체질 소유자
- 임신부
- 특별한 병명 없는 신경성 질환자

(편집실 기)

발특2003/2



탄소히터(미국특허), 전자파환경인증, 전자파제거기능(특허청), 장영실과학문화상 대상, 국제발명품대회 금상, 식약청의료기 인증